

서울스포츠

SPORTS SEOUL CULTURE

작은 화면 속
거대한 스포츠의 세계



03+04
2024 No.388



@dal_lyxx



@sooil Lauren



@eunbi_yoga



@grandcross2009



@vidya_yoga



@lovrerr_s

새봄을 알리는 새싹이 돌아나듯
우리도 단단하게 심신을 단련하며
더 멀리 나아갈 준비를 해 봐요

운동을 하는 서울시민들의 인증 사진을 기다립니다.
다음 05+06월호 주제는 '팀 스포츠'입니다. 함께 땀 흘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 주세요.

이벤트 안내
참여 방법 본인 인스타그램 채널에 필수 해시태그(#서울스포츠오하운 #서울스포츠이벤트)를 달고 운동 인증 사진을 올려 주세요.
참여 기간 4월 25일(목)까지 **당첨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yoga_hana.k



@rose_a.blos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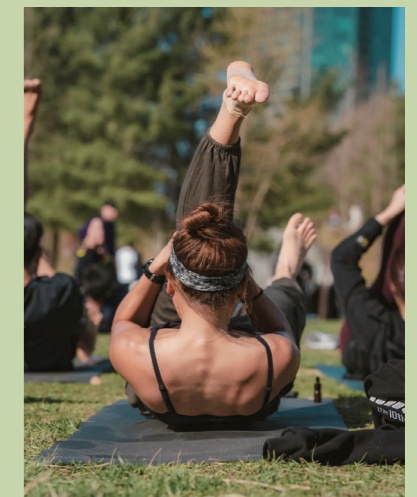
@honuyoga



@une_fleur__



@door_1603



@jung_pig_run



cover story

e스포츠 속 세상은
 무궁무진하게 넓다.
 일상과 달아 있으면서도
 거대한 스포츠의
 세계를 표현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06 스포츠가 있는 풍경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0 요즘, 스포츠
 e스포츠, 네가 궁금해!
 ① 대세는 e스포츠
 ② e스포츠, 올림픽에서 볼 수 있을까?
 ③ e스포츠 산업, 실재는 거품?

20 믿고 즐기는 스포츠
 호주에서 온 릴리 씨
 도전하는 근력으로
 여자야구를 시작하다

28 건강한 서울
 걷기의 매력에 빠지고 싶다면
 서울을 걷길!

32 인플루언서와 함께
 안정은 러닝전도사와 함께!
 봄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36 운동으로 만난 우리
 서울시청 조명우 선수와 만난
 당구동호회 인생큐

42 뭉치면 한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초등부 축구 전문선수반

46 이슈 공감
 스포츠 중계,
 이제는 뉴미디어로

48 스포츠와 ESG
 장애인 체육의 시작은
 재활체육에서부터

50 함께하는 체육회
 활기찬 마포,
 그 중심의 마포구체육회

52 우리 동네 체육 대장
 하모니 볼링클럽

56 회원종목단체장을 만나다
 서울특별시파크골프협회
 정장수 회장

58 SSC & SSAD 뉴스

빙상 스피드 1,000M에 출전한 서울시청 권수인 선수가 역주하고 있다.



불거리 가득했던 겨울 스포츠 별들의 축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총 8개 종목, 선수 및 임원 4,272명이 참가한 가운데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강원도 전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설상 종목이 연기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서울시 선수단의 선전으로 종합 2위 수성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스키협회 이한희 선수가 스키 알파인 회전경기에서 활주를 마친 후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이한희 선수는 1분13초5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 1 0 5 회 전국 동 계 체 육 대 회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선수가 기문을 통과하고 있다.





컬링 여자 고등부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서울 세현고 선수들의 준준결승 경기 장면. 세현고는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준준결승 경기에서 부산외고를 만나 31:0으로 승리했다.

춘천송암스포츠타운빙상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고등부 1,000M에 출전한 서울 신목고 이지아 선수가 선두에서 코너를 질주하고 있다.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남자 중등부 준준결승 경기에서 서울 광운중이 대구 달구벌스포츠클럽에게 10:2로 승리했다. 광운중은 결승에서 서울 경희중에게 4:1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승의초 허지유 선수가 여자 초등부 싱글A조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허지유 선수는 프리스케이팅과 쇼트프로그램 도합 136.13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E P O T

S R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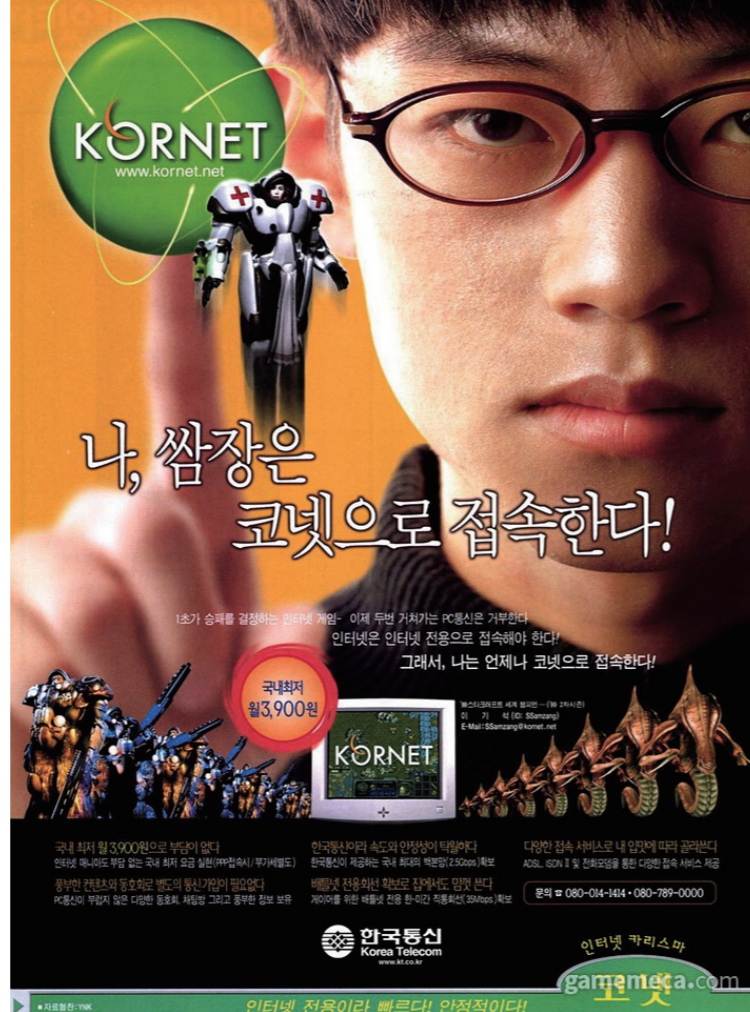
e스포츠, 네가 궁금해!

e스포츠는 갑자기 등장한 스포츠가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 리그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를 발판으로 계속해서 산업은 커졌다. 최근 들어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준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하기까지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점차 e스포츠를 향한 시야도 넓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e스포츠는 과연 어떤 철학을 담은 스포츠일까. e스포츠가 가진 가능성과 부정적 평가도 함께 알아본다. 이제 e스포츠의 의미를 찾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대세는 e스포츠

e스포츠는 팀이나 개인 단위로 경쟁하는 스포츠의 한 형식이다. 단, 공이나 몸이 아닌 디지털게임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여타 스포츠와 다르다. 법률상 전자스포츠라고도 불리는데, e스포츠는 엄연한 공식 명칭이다. 2007년부터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갈고닦은 실력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종목에서 금메달을 2개나 획득했다. 더 나아가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누가 뭐라 해도 e스포츠가 대세가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e스포츠는 어떻게 대세의 반열에 올랐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e스포츠가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 이장주



©게임메카DB

e스포츠의 역사(略史)

PC방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커진 스타크래프트 대회

스포츠가 그러하듯, e스포츠 역시 우연하게 탄생하였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말이다. IMF 시기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쳤다.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뒤따랐고, 수많은 중년 가장들은 실업자가 되었다. 1998년 출시된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충은 PC방 창업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불러왔다. 이때 개장한 PC방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스타크래프트 대회만 한 것이 없었다. 대형 PC방을 개업하고 나서 여는 스타크래프트 대회에는 상금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이 주어지기도 했다.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회에 자연스레 모여들었고, 이런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파트너와 연습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전국에 내로라하는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이 의기투합하여 팀을 만든다. 게임으로 생계를 이어 간다는 의미로 이들은 스스로를 ‘프로게이머’라 칭했으며, 그들이 모인 팀은 프로게임단으로 자연스럽게 불리게 되었다. 그 효시는 ‘청호SG’ 게임단이다.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민속놀이라고 불릴 만큼 중장년에게도 익숙한 게임이다. 사실 스타크래프트는 IMF 시절 박세리, 박찬호 선수와 더불어 전 국민 희망의 아이콘이기도 했다. 당시 청호 SG 소속 신주영은 스타크래프트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신주영에 이어 세계레더대회에서 우승한 이기석은 자신의 아이디 씬장이라는 이름으로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들이 대회에 출전한다는 소식은 주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에게 큰 뉴스거리였으며, 이들의 경기는 많은 게이머들이 꼭 따라 봐야 하는 교범이 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산발적인 PC방 대회가 아닌 상시적인 대회가 열렸고, 여기에 그 당시 벤처열풍으로 생긴 회사들이 자사 팀을 만들어 출전하게 되었다. 최초의 독립적인 게임리그 KPGL(Korea Pro Gamers League)이었다. 그리고 이들 대회를 주요 콘텐츠로 삼는 케이블 TV채널, 온게임넷과 MBC게임 등이 생겨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 게임단들의 연합체인 협회가 결성되고, 게임과 밀접하거나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핵심 소비자로서 삼는 이동통신사들(삼성

전자, SK텔레콤, KTF)의 팀들이 창단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등장

2004년 7월 17일, 온게임넷 스카이 프로리그 전기 결승전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스타크래프트 프랜차이즈 스타 임요환의 SKT T1과 한빛 스타즈의 경기에 10만 명이 모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리기도 했는데, 그날 관중은 1만6,000명이었다. 신생 게임대회가 전통적인 프로스포츠의 관중을 훌쩍 뛰어넘는 e스포츠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서서히 식을 무렵 이를 대체할 게임이 등장했다. 흔히 롤로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다. 국내에서 특히 인기였던 스타크래프트와 달리 롤의 인기는 전 세계적이었다. 또한 게임대회 역시 협회나 방송국 중심이 아닌, 게임사(더 정확히 말하면 게임 퍼블리셔)가 방송과 대회를 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은 위기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된다는 점과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세계적으로 최고 실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주요 스포츠 리그가 휴업을 했던 것에 반해 e스포츠는 정상적으로 리그가 진행되어 차세대 스포츠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코로나가 약해지면서 총상금 220만 달러가 걸린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일명 롤드컵) 결승전이 서울 고척



©shutterstock



©shutterstock

WORLDS 2023 KOREA



©서울시

스카이돔에서 열렸다. 전 세계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팀이 경합을 벌인 끝에 11월 19일 우리나라의 T1은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과 대결하여 3:0으로 우승했다. 이날 고척스카이돔 결승전 입장권은 예매 10분 만에 1만8,000석이 매진되었고 압표가 최대 300만 원까지 거래되기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온라인으로 경기를 관람한 시청자는 4억 명으로 추산되며, 국내외 롤 팬 2만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응원을 하기도 했다. FIFA 월드컵 응원과 다를 바 없었다.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린다면 월드컵은 매년 열린다는 점만 빼고 말이다.

스포츠와 e스포츠

스포츠계의 새로운 활로가 된 e스포츠

e스포츠의 초창기, 신체적인 움직임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개념의 스포츠계는 e스포츠를 스포츠 범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 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오히려 스포츠계가 e스포츠를 도입하려는 데 적극적이다.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경기는 현장판매 없이 예매로만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월드컵과 유사하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닌 추첨 방식

으로 표를 판매했다. 더구나 아시안게임의 다른 종목들은 입장권 가격이 50위안부터 시작된 반면 e스포츠는 그보다 4배나 비싼 200위안부터였다. 텅 빈 객석을 걱정해야 하는 주최측 입장에서 e스포츠는 너무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젊은 층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계의 새로운 활로로 적극 모색되고 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e스포츠가 논의되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북미 프로스포츠 시청 층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메이저리그(MLB) 평균 시청 연령은 52세에서 57세로 높아졌으며, 북미 아이스하키리그는 33세에서 49세로 경층 뛰어올랐다. 미국 프로풋볼(NFL)은 44세에서 50세였고, 그나마 미국프로농구(NBA)의 평균 시청자 연령이 43세로 낮은 편이다. 스포츠의 메가이벤트라는 올림픽도 고령화를 피해갈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미국인 시청자 중위연령은 39세였지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53세였다. 더 심각한 것은 시청자 수도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역대 최저치였는데, 직전 대회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보다 무려 35%가 줄어든 것이다.

e스포츠와 협업하기 시작한 스포츠

스포츠가 미래에도 존속하려면 MZ세대를 경기장과 중계 미디어 앞으로 모이게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업이 되었다. 이미 여러 스포츠 종목들이 e스포츠와 협업하기 시작했다. 축구라면 죽고 못 사는 유럽의 클럽팀들이 먼저 움직였다. 2015년 튀르키예 축구 클럽 베식타시 JK가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을 창단해 튀르키예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TCL) 참가를 필두로 독일 볼프스부르크, 영국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 등이 가세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축구를 넘어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농구, 모터스포츠인 F1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부터 FC서울, 포항스틸러스, 제주 유나이티드FC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축구게임 리그인 'eK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스포츠의 인기가 기존 스포츠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축구 게임팬들을 K리그도 함께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e스포츠가 던지는 시사점

지루할 틈이 없는 극적인 경기 모델

현재 e스포츠의 인기가 스포츠를 능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상 이면의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e스포츠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e스포츠는 디지털 미디어에 최적화된 콘텐츠다. 즉 지루할 틈이 없다. 그리고 비교적 단시간에 끝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3-4시간씩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 변화가 필요하다. 스포츠계에서도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다이내믹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단축하고 얼마나 극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e스포츠가 보여 주고 있다. 경기가 지루하다는 것은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넘어 자본이 이탈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연습도 콘텐츠가 되는 e스포츠

둘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임은 경기뿐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는 형태를 보인다. 연습도 콘텐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게임단은 독자적인 채널을 보유하면서 연습을 공개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호흡을 함께한다. 이런 점은 스포츠계도 벤

치마킬할 필요가 있다. 사실 팬들은 선수들이 활약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궁금해 하며, 이러한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보고자 현장에서 응원을 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선수와 팬들이라는 일대다 관계라기보다 일대일의 관계다. 그러다 보니 애착과 충성도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이 기존 스포츠의 문법과 e스포츠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것이다.

초연결사회에서 맺어지는 선수와 팬의 관계

마지막으로 팬서비스다. 멋진 세리머니가 아니라 선수가 잘하는 테크닉이나 지식을 팬들에게 제공하여 팬들의 실력과 재미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e스포츠의 경우 스킬이나 아이템 트리를 공개하며, 아마추어들이 따라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 준다. 단순히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도 함께 느는 것이다. 달리 보면 선수와 팬이 아닌 스승과 제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결국 초연결사회에서 스포츠 선수와 팀은 어떻게 팬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모델과 방향을 e스포츠가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융합모델이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e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이다.

글을 쓴 이장주는 사회문화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이라크 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겸 게임문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LCK 경기는 거의 빼놓지 않고 보려는 열성 시청자 중 한 명이다.



©shutterstock

e스포츠, 올림픽에서 볼 수 있을까?

e스포츠를 향한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최 예정인 파리 올림픽에서는 e스포츠를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시켰다. e스포츠를 '정식 스포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 때문인데, e스포츠가 담고 있는 의미와 가능성을 제대로 논의하는 첫걸음부터 제대로 떼야 한다.

글 최은경



대중의 관심을 받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속 e스포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는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7개의 세부종목이 화제였고, 게이머라는 직업이 확인됐으며,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의 경기를 관람하려는 젊은이들의 e스포츠 열정이 눈에 띈 것이다. 또한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된 e스포츠 선수들도 있었다. 물론 스트리트 파이터V로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한 김관우 선수는 40대였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은 10대 때부터 국내외 프로 대회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활동해 온 선수들이었기에 e스포츠 팬 사이에선 군 면제보다 e스포츠를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이슈였다.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해 역사가 깊은 올림픽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선수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평소 그 종목을 좋아하고, 각종 대회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대중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즉, 올림픽은 스포츠를 매개로 지구촌이 국적, 인종, 성별, 계급, 빈부, 종교의 벽을 넘을 수 있고, 평등, 공정, 희생, 협동 같은 정신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에 모든 스포츠가 바라는 꿈의 무대가 된다. e스포츠도 예외가 될 순 없다.

첫걸음은 e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해

2023년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경기연맹(IF) 그리고 게임 퍼블리셔들이 함께 개최한 제1회 올림픽 e스포츠, 즉 글로벌 버추얼(VR) 시뮬레이션 스포츠 대회는 가상스포츠의 재미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댄스, 모터스포츠, 사격, 사이클, 야구, 양궁, 요트, 체스, 태권도, 테니스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은 VR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를 치렀는데, 보통의 스포츠 대회 풍경과 다른 게임 축제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미디어와 기술이 가득했다. 최근 올림픽 개최국들이 새로운 종목을 도입하며 변화와 흥행을 고민하는 상황이라, 디지털 장비와 온라인 기술을 허락하는 올림픽의 변화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e스포츠가 올림픽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e스포츠를 제외시켰다. e스포츠가 폭력적이고, 운동선수의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공식이유였다. 사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는 늘 e스포츠를 따라다닌다. 예컨대 e스포츠가 비폭력적이고, 선수의 신체성이 중요한 스포츠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정식 스포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e스포츠가 게임의 폭력성과 비신체성 안에서 여전히 해석되고 있다는 현실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e스포츠의 발전 역사와 사회문화적 함의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e스포츠의 올림픽 편입을 맹목적으로 부추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만든 오해와 편견의 결과라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e스포츠의 역사와 발전을 고려할 때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e스포츠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IOC는 e스포츠 종목과 대회 생태계적 특징을 다층적으로 이해해야 e스포츠 종목 중 어떤 게임을 올림픽 종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다.

신규 종목 발굴과 공정한 대회 운영, 아마추어 선수 양성과 프로 선수 교육 지원 등 e스포츠는 현실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e스포츠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의 동행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최초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e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물이 단일 혹은 복합종목 리그로 개최되도록 시장과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PC와 온라인 기반의 비디오 게임물이 e스포츠 산업의 모태가 되면서 지난 20년 넘게 모바일, 콘솔, VR, AR, XR 게임 시장과 전통 스포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서 미래 스포츠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신규 종목 발굴과 공정한 대회 운영, 아마추어 선수 양성과 프로 선수 교육 지원 등 e스포츠는 현실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e스포츠는 게임물이면서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인정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글을 쓴 최은경은 한신대학교 e스포츠 융합전공 대학원 교수로 있다. 서울교육청 인정 고등학교 첫 e스포츠 교과서 'e스포츠 실습', 'e스포츠 선수 심리'의 주집필인으로 참여했다.

e스포츠 산업, 실재는 거품?

산업 기반의 수익 악화로 인한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개선 방법

e스포츠 산업의 부정적 이슈들은 상당한 위기를 암시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과 개혁의 기회도 제공한다.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협력은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글. 김대환

e스포츠 산업은 지속 가능한가?

지난 2023년은 e스포츠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였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대회 기간 내내 타 종목을 압도하여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산업은 최근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e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장밋빛으로 점철된 e스포츠 산업은 과연 앞으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글로벌 e스포츠 산업에서의 수익성을 이유로 e스포츠 산업의 한계론이 거론되고 있다. 게임산업 전문 리서치 기관 Newzoo(2024)에 따르면, 과거 e스포츠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는 달리 최근 몇 년간 산업규모는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한 추세로 회복된다고 예측한다. 전 세계 e스포츠 산업규모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북미 e스포츠 산업에서도 e스포츠 위기가 대두된다. 국내 e스포츠 산업 역시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04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15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2021년 프랜차이즈 도입 후 2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LCK의 최고 인기 구단인 T1은 2022년 약 16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듯, e스포츠 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e스포츠 산업의 버블을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투자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 이슈 ① 이해관계자들의 수익 분배 불균형

무엇이 문제일까?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부정적 이슈들을 살펴보자. 우선,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익 분배 불균형이다. e스포츠 산업 생태계는 게임사, 선수 및 구단, 조직(협회 및 대회조직위), 미디어 및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 및 스폰서, 유저 및 팬 커뮤니티 등의 주요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스포츠 산업과는 달리 e스포츠의 경우 종목(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가 종목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소유하다 보니, 구단을 포함한 타 이해관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구단의 경우 출전 가능한 대회가 감소하고 상금 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선수들 연봉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디앤리서치의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e스포츠 구단 운영비는 평균 35~4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선수 연봉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e스포츠 산업에서 파생되는 산업적 가치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편중되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 이슈 ② 변동성 큰 수익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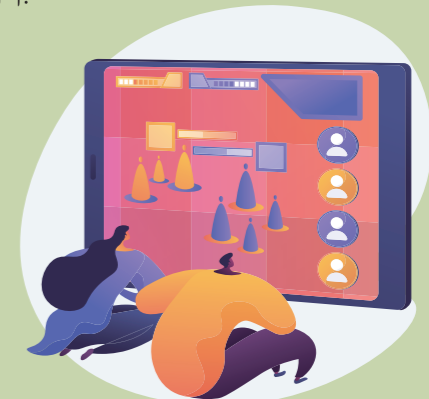
둘째, e스포츠 산업의 수익 모델은 스폰서십 및 광고와 같은 변동성이 큰 수익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Newzoo(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e스포츠 산업 수익 구조에서 스폰서십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을 중계권, 게임 퍼블리셔 수수료, 머천다이징 및 티켓 판매, 디지털 상품, 스트리밍 순으로 차지한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3년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은 1,51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단 예산(63.6%)의 대부분은 스폰서십과 같은 기업 후원으로 알려져 있다. 근본적으로 스폰서가 e스포츠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사의 이익 극대화이기 때문에 e스포츠 구단의 성적이 저조하거나 팬층이 축소될 경우 스폰서십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e스포츠 산업의 수익 모델은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부정적 이슈 ③ 부실한 유망주 발굴 체계

마지막으로, e스포츠 산업 전반의 취약한 풀뿌리 기반 및 선수의 불안정한 미래 역시 e스포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종목을 불문하고 스타 선수의 존재는 해당 종목의 인기와 관심을 고조시키고 관련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된다. 스타 선수는 체계적인 풀뿌리 시스템에서 육성된다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스포츠에 비해 유망주를 발굴할 체계가 부실한 e스포츠는 산업 성장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풀뿌리 기반의 취약성과 함께 e스포츠 은퇴 선수의 불안정한 미래는 직업으로서 e스포츠 선수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결국 취약한 풀뿌리 기반과 악순환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e스포츠 산업 개선을 위한 제언

앞서 언급한 e스포츠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진부한 이야기지만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을 통해 개선된 수익 분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가진 게임사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구단의 연봉 샐러리캡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우 합리적 수준의 선수 연봉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산업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구단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여 구단 중심의 팬덤을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과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체계 내에서 e스포츠 전반에 걸친 풀뿌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 체계 내에서 육성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이 부재하여 e스포츠는 유망주들이 학교를 일찍 중퇴하고 사실 기관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극소수만이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프로 진출에 실패할 경우 이들의 사회 진출을 준비시킬 지원 체계도 부재하다.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굴이 구단, 리그,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교육 체계 내에서 선수가 육성되고 이를 통해 아마추어 리그가 확대되어 e스포츠의 긍정적인 문화와 직업 분야로 자리 잡게 된다면 e스포츠 산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글을 쓴 김대환은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소비자행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스포츠경영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호주에서 온 릴리 씨

도전하는 근력으로 여자야구를 시작하다

우리가 쌓아 온 어제는 오늘의 나를 만든다.
릴리 씨가 야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동력은 끊임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자신에게 있었다.
이스트서울 여자야구팀의 우익수.
아직은 새내기이지만 그렇기에 앞으로
더 발전할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릴리 씨는
오늘도 공에 시선을 집중한다.

글 임산하 사진 황지현 영상 최의인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저 없이 시작한 야구

흔히 야구는 인생을 닮았다고 말한다. 9회말 2아웃까지도 승부는 예측할 수 없고,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애석하게도 3할의 확률을 넘기기란 어렵다. 한 번 흔들리면 투수의 공은 쉽게 빠지고, '무사 만루'에서 '잔루 만루'로 이닝이 종료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 공은 우리의 편이 된다. 아무리 확률 게임이라고 해도, 각자의 최선과 노력으로 확률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이것이 야구의 매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삶이다. 이스트서울 여자야구팀의 우익수로 활동하고 있는 릴리 씨가 서울에 자리를 잡기까지 쌓아 온 삶에도 하루하루 애쓴 시간이 녹아 있다.

“2016년 8월 10일. 한국에 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고향인 호주와 달리 한국은 제게 기회가 많은 땅으로 보였어요. 비록 땅은 작지만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물론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겐 그것이 장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교사로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머물렀고, 이후에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로 이사했다가, 다시 일 자리를 구해 경상남도 함안과 경기도 김포로, 그리고 1년 반쯤 전에 서울 강동구에 터를 잡았어요.”



여러 지역을 거쳤다는 것이 그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온 증거가 아닐까. 그는 현재 성과학자로 성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을 위한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 전이어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도 만족스럽다는 듯이 기대감을 내비친다. 릴리 씨는 언제나 마음이 끌리는 일에 직진을 해왔고, 야구도 그중 하나였다.

“함안에 살 때 우연히 창원NC파크에서 야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야구 관람 문화가 너무 재밌는 게 아니겠어요?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어서 정말 신나고, 팀이 하나가 되어 울고 웃는 게 짜릿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야구에 관심이 생겼죠. 사실 호주에서 야구는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전까지는 야구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해 본 적도 없는 건 물론이고요.”

학생 때부터 농구, 축구 등을 해서 팀 스포츠에는 잔뼈가 굵었던 그에게도 야구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울로 이사를 온 뒤 SNS를 통해 여자야구팀을 찾아봤고, '이스트서울 여자야구팀'을 만났다. 성인이 된 뒤로 팀 스포츠를 할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그에게는 짜릿한 설렘이 밀려왔다.

“이름에서 끌렸죠. 제가 사는 곳이 정말 '이스트서울(East Seoul)' 즉, 동서울이잖아요. 이곳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낀 데다 분위기가 즐거워 보여서 좋았어요. 이제 3개월 차가 된 신입 우익수여서 제 배번을 단 유니폼을 기다리고 있는데, 26번 유니폼을 입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습에 매진하는 중이에요.”





이전까지는 야구장 밖에서 야구를 관람했다면, 이제는 야구장 안에서 직접 선수로 뛰는 릴리 씨. 그는 타격에서도 수비에서도 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집중을 잃지 않으며, 야구 규칙도 새롭게 알아가는 중이다.

“직접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치기 위해 공을 주시하고, 우익수로서 중계 플레이를 하기 위해 집중을 하다 보니 야구와 더 친해지는 기분이예요. 사실 모든 스포츠가 쉽지 않지만, 야구는 규칙이 많잖아요. 비로소 제대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겨요. 아직 서울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본 적은 없는데, 올해는 개막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이 연고지인 팀을 응원하는 팀원들과 함께 가서 저도 응원을 해야죠. 그래도 처음 알게 된 NC 다이노스를요.(웃음) 그리고 올해는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도 열리잖아요. 무척 기대 중이에요.”

칭찬에 머물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

신입 우익수에서 당당히 선발 우익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릴리 씨. 이제 그에게 일요일은 ‘야구를 위한 날’이 되었다. 이스트서울 여자야구팀의 연습이 있기 때문이다. 약속된 일요일에 빠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스타팅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생명이지요. 감독님과 코치님께 배우고, 주장 언니는 물론 팀원들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점차 나아지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기뻐요. 그리고 야구는 팀 스포츠인데 함께 친해지기도 좋은 기회잖아요.”

모두의 기대가 모이는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2024!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SD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경기로 펼쳐지며, 특히 SD 파드리스에는 한국의 김하성 선수와 올해 입단한 고우석 선수가 있어 기대를 모은다. 또 LA 다저스에는 세계적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도 소속되어 있어 예매부터 전쟁이었다. 이에 앞서 3월 17일과 18일에는 스페셜 게임으로 한국프로야구의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 그리고 팀 코리아가 SD 파드리스, LA 다저스와 경기를 치르게 된다. 어마어마한 관심을 모으는 이 경기가 국내 최초 돔야구장으로 건립된 서울의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많은 이의 가슴을 뛰게 한다.

연습의 힘이었을까. 지난번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8번 타자로 등판한 적이 있다며 방긋 웃는 그. 당시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도루 성공에 1득점까지 했었다고. 그러나 아직 타격이 부족하다며 자성도 잊지 않는다.

“오늘 연습에서도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타격에 좀 더 힘을 내 보자고요.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 때 근처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야구 연습장을 자주 찾았거든요. 그땐 야구에 관심을 갖기 전이었지만 타격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타격을 좋아했어서 좋은 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나죠. 지금도 그쪽에 가면 항상 찾아요. 거긴 포털 지도에도 나오는 곳이에요.(웃음)”

실제 야구 연습을 하는 릴리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던 오늘. 약 40분간 이어진 외야 평고를 마친 뒤 감독님은 그에게 칭찬 일색이었다. 감독님은 그가 축구를 한 적이 있는지도 물어보았는데, 공의 낙구 지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칭찬에 머물지 않는 릴리 씨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

“홈런을 치는 4번 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하지만 당장 이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그렇게 빠르게 얻어 내고 싶지도 않아요. 차근차근 밟아 가야죠. 그리고 앞으로 전국 여자야구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팀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수로 활약하고 싶어요.”

지금 야구와 함께 서울도 알아가는 중

야구를 애정하는 만큼 서울도 좋아한다는 릴리 씨. 야구 연습이 없는 날에도 운동을 쉬지 않는 그는 서울 곳곳의 명소도 즐겨 찾는다.

“서울은 도시지만 자연이 가득하죠.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등 여러 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락산 기차바위가 기억에 남아요. 암벽로프를 타고 오르는 짜릿함이 있었죠. 또 한강도 좋아해요. 자전거를 타고 근처 편의점에 서 즉석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의도한강공원을 자주 찾는데, 아무래도 출근길 당산철교를 지나며 바라본 풍경이 인상적이어서 그쪽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릴리 씨가 이스트서울 여자야구팀에 입단한 이후 가장 많이 연습을 했던 곳도 서울의 야구장이었다. 그중에서도 살곶이체육공원의 살곶이야구장. 이곳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는, 실제로 가 보니 매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사실 모든 스포츠가 쉽지 않지만, 야구는 규칙이 많잖아요. 비로소 제대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겨요. 아직 서울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본 적은 없는데, 올해는 개막을 기다리고 있어요.”

“살곳야구장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 같아요. 특히 아침 일찍 연습을 할 때면 중량천 너머로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열심히 땀 흘리는 제가 그 풍광 속의 일부가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게다가 선선한 천변 바람이 불어와 너무나도 시원하지요.”



연습 후에는 팀원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친목을 다지는데, 가장 추천할 만한 곳으로 릴리 씨는 성동구의 대찬식당을 꼽았다. 제주생고기김치찌개와 불맛 제육볶음의 맛이 가히 으뜸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을 곱씹으며 먹는 밥은 얼마나 달까. 시간을 성실하게 채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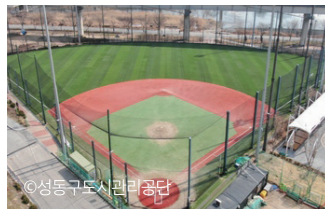
“야구는 서로에게도 집중을 많이 해야 하는 스포츠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때로 금천구에 있는 금천베이스볼파크에서도 연습을 하는데 그때는 감동님 댁으로 가서 밥을 먹기도 해요.”



릴리 씨의 이야기 끝에는 늘 미소가 따라온다. 야구를 떠올리면 마냥 행복하다는 그는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비록 그 길의 끝에서 홈플레이트를 밟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열정을 쏟은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야구는 인생을 닮았고, 인생은 과정의 연속이기에. 끝으로 릴리 씨는 야구에 대한 열의가 있다면 본인처럼 참여와 도전을 멈추지 말라고 마음을 전한다.

“어떤 스포츠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도전해 보길 바라요. 그리고 만일 야구를 남성의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주저하고 있는 여성분이 있다면, 고개를 돌려 봐요. 여자 야구팀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 함께, 여자야구에서 만나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살곳이체육공원 살곳야구장



살곳이체육공원은 청계천과 중량천이 만나는 부근에 자리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이곳을 지나는 살곳이 길은 산책하기 좋은 길로도 불릴 정도다. 살곳이체육공원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살곳야구장은 인조잔디 설치, 캐치볼장 조명 설치 등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규모 7,002㎡로 센터 펜스까지는 약 87m의 길이를 자랑한다. 대관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누리집(sports.happys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릴리 씨를 따라 서울에서 야구를 즐겨 보자!



살곳야구장

“청계천과 중량천이 만나는 곳에 자리해 있어요. 경지도 좋고, 무엇보다 아침 일찍 연습을 하면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낭만적이예요.”

📍 성동구 사근동 102-16



고척스카이돔

“서울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본 적은 없지만, 올해는 개막하면 꼭 찾아가려고요. 그리고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니 너무 기대돼요.”

📍 구로구 경인로 430



대찬식당

“살곳야구장에서 연습을 한 뒤에 자주 찾는 곳이에요. 특히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제주생고기김치찌개는 꼭 드셔보시길 바라요.”

📍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27동 118호



금천베이스볼파크

“규모가 그리 넓지는 않지만 2021년에 문을 열어서인지 깔끔한 시설을 자랑해요. 가까이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도 좋지요.”

📍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44



코인 야구연습장

“게임처럼 즐기는 곳이어도 집중력을 높이기에 좋아요. 물론 실제 투수가 던지는 공과는 다르지만, 타격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 관악구 관악로 172

걷기의 매력에 빠지고 싶다면 서울을 걷길!

어렵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는 탁월한 걷기. 걷기는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데, 좀 더 특별한 걷기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서울걷길 걷기 코스>를 추천한다.

글. 임산하

걷기에 깊이를 더하는 서울걷길!

첫발을 내딛는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편 가르기 없이 모두를 넉넉하게 품는 운동.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바로 걷기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성인병 예방과 체지방률 감소 등 효과가 뛰어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마치 성인(聖人)처럼 마음이 큰 운동인 셈이다. 이렇게 장점이 가득한 걷기를 서울시민들이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는 <서울걷길 걷기 코스> 책을 내왔다. 해당 코스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25개 자치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서울걷길 운영' 사업에서 지정된 코스다. <서울걷길 걷기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서울을 더욱 깊이 있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걷길 걷기 코스>
이북 바로가기

건강한 서울



올봄엔 어디를 걸어 볼까?

1 북악산 둘레길

힘차게 되새기는 서울의 역사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걷기에도 힘이 생긴다. 이런 때 트레킹을 접목하면 알찬 운동이 될 수 있을 터. 지난 2022년 4월 모든 탐방로가 전면 개방되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북악산 둘레길을 추천한다. 서울 한양도성길과도 연결되므로 서울의 역사를 되새기며 걷기에도 좋다. 또 성곽길 너머로 도심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명승지가 따로 없다. 본래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한 도성은 이제 후손들에게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 준다. 북악산 둘레길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걷기에 단련이 되었다면 서울 한양도성길도 도전해 보길 바란다.

도심권

종로구-북악산 둘레길

코스 삼청공원 입구 → 말바위전망대 → 한양성곽길 → 숙정문 → 청운대 전망대 → 삼청공원 입구
거리 3.75km 소요 시간 1시간 10분

중구-한양도성 순성길

코스 장충단공원 → 형제나무 → 전망대 → 분수대 → 석호정 → 장충단공원/장충단비
거리 3.5km 소요 시간 1시간

용산구-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산책로

코스 한강대교 → 거북선나루터 → 자연학습장 → 동작대교 → 한강대교
거리 4.1km 소요 시간 1시간



©서울한양도성

2 경춘선 숲길

모두의 추억 위에 쌓는 우리만의 추억

설레는 기분에 마음이 절로 달뜨는 봄에는 소풍이 가고 싶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읽은 듯 길을 내어 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경춘선 숲길이다. 본래 청춘을 신고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달리던 경춘선의 폐선 부지 일부를 서울시가 낭만이 깃든 숲길로 재탄생시킨 이곳. 기차길 위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지만, 결코 추억은 시간 뒤편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이곳에는 많은 이의 추억이 쌓인다. 특히 경춘선 숲길 주변은 공릉동의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공리단길'이 자리해 있어, 멋과 맛을 함께 즐기기에 좋다.

성북구-성북천 코스

코스 성북천분수광장 → 바람마당교 → 보문4교 → 안암교 → 성북천분수광장
거리 5km 소요 시간 1시간 10분

노원구-경춘선 숲길

코스 녹천중학교 → 경춘숲공원 → 경춘폭포 → 시간을 거니는 철길 숲길 → 화랑대역 페억
거리 4.6km 소요 시간 1시간 10분

동대문구-배봉산 둘레길

코스 배봉산열린광장 → 인공암벽장 → 황돛길 → 숲속도서관
거리 3.3km 소요 시간 1시간

강북구-너랑나랑우리랑 북한산 둘레길

코스 우이동 만남의 광장 → 솔밭근린공원 → 4.19전망대 → 근현대사기념관
거리 4.8km 소요 시간 1시간 35분

동북권

종랑구-종랑천 장미길

코스 종화둔치체육공원 → 종랑장미공원 → 장미터널 입구 → 목동 공중화장실 → 종화둔치체육공원 옆 다리 → 종화둔치체육공원
거리 3.5km 소요 시간 1시간

도봉구-도봉의 문화 속으로 걷길

코스 전형필 가옥 → 정의공주묘 → 원당샘공원 은행나무 → 원당마을한옥도서관 → 김수영문학관 → 발바닥공원 입구
거리 2.5km 소요 시간 40분

광진구-아차산동행숲길

코스 아차산어울림광장 → 아차산동행숲길 걷기 코스 → 아차산어울림광장
거리 1.7km 소요 시간 30분

성동구-종랑천 수변길

코스 살곶이체육공원 → 살곶이길 → 응봉체육공원 → 용비교아래쉼터 → 종랑천교 → 서울숲 야외무대
거리 4km 소요 시간 1시간 5분



3 안양천 수변길

서남권

벚꽃 길 따라 낭만과 건강을 한번에

역시 봄 하면 벚꽃을 빼 놓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안양천 벚꽃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을 따라 수변길을 걸으면 어떨까. 해사하게 피어난 벚꽃의 인사를 받으면 마음에도 웃음이 피어날 것이다. 게다가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출발 지점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영학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곳 정자에 오르면 안양천과 그 너머의 빌딩숲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작품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궁도장도 있으니 국궁이나 양궁에 관심 있다면 한번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양천구-안양천 수변길

코스 신정교 → 안양천가족공원 → 영학정 → 목동인라인파크 → 신정교
거리 4.1km 소요 시간 1시간

강서구-개화산 둘레길

코스 방화근린공원 → 야외 운동시설 → 약사사 → 개화산비석 → 미타사 → 방화근린공원
거리 3km 소요 시간 1시간

영등포구-안양천 수변 생태순환길

코스 신정교 → 반환점(1.5km) → 신정교
거리 3km 소요 시간 50분

구로구-구로올레길

코스 안양천 A축구장 → 안양천 물놀이장 → 안양천 장미원 → 안양천 C축구장 → 도림천 농구장 → 디큐브파크 아래
거리 2.8km 소요 시간 40분

관악구-별빛내린천 수변길

코스 수변무대 → 문화교 → 신림2교 → 신림3교 → 동방1교
거리 2.0km 소요 시간 30분

금천구-금천구 해피워킹 코스

코스 안양천 다목적광장 → 어린이 물놀이장 → 소규모 축구장 → 파크골프장 → 철산교 → 독산보도교
거리 5.2km 소요 시간 1시간 20분

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

코스 현충원정문 → 상도통문 → 김대중대통령묘소 → 현충원정문
거리 2.8km 소요 시간 42분

4 홍제천 산책로

서북권

자연의 화음 속을 누비는 걷기

홍제천 산책로의 매력은 도심 속에서 시원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북한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드는 홍제천의 청아한 소리를 들으며, 궁동공원, 백련산, 안산 등 푸르른 멋을 사랑하는 숲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회색소음이 아닌 녹색이 연주하는 음악 속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리고 홍제천 산책로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1.9km쯤 가면 만날 수 있는 인공폭포마당이다. 최근 '서대문 홍제폭포'로 새롭게 명명된 이곳에서는 시원한 여유도 즐길 수 있다. 맞은편에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로 조성된 수변테라스 카페가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도 으뜸이다.



서대문구-홍제천 산책로

코스 연가교하단 → 홍남교 → 인공폭포마당 → 홍제3교 → 연가교하단
거리 5.7km 소요 시간 1시간 25분

은평구-불광천길 산책로

코스 응암역 4번출구 → 은평춘당 → 장미터널 → 야외 운동시설 → 해담는다리
거리 2km 소요 시간 30분

마포구-평화의공원 둘레길

코스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 구름다리 → 오솔길 → 메타세쿼이아길 →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거리 4km 소요 시간 1시간

5 그린웨이 걷기 코스

동남권

넓은 산이 품은 다양한 명소

겨울에 맞서며 잎눈과 꽃눈을 지켜 온 초목들은 하나둘 움트며 봄을 맞이하고 있다. 어디든 산이 많은 서울에는 그 생생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일자산의 매력이 대단하다. 해발 134m로 높지 않지만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있어 서울의 외곽을 둘러싸는 일자산은 잔디광장, 해맞이광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허브천문공원 등을 품고 있다. 특히 강동구청에서는 상·하반기 각 1회 넷째 주 토요일에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연다. 일자산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다양한 문화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여해 보는 것도 특별한 재미일 것이다.



서초구-길마중길 러닝 코스

코스 용허리근린공원 → 서초IC → 반포IC → 용허리근린공원
거리 4.5km 소요 시간 1시간 7분

강남구-양재천 러닝 코스

코스 영동3교 → 영동5교 앞 다리 → 영동3교
거리 3.2km 소요 시간 47분

송파구-성내천 둘레길

코스 마천교 → 물빛광장 → 청룡2교 → 올림픽공원 → 성내교 → 성내천길 종점
거리 6km 소요 시간 1시간 30분

강동구-그린웨이 걷기 코스

코스 일자산잔디광장 → 해맞이광장 → 가족캠핑장 → 일자산잔디광장
거리 3.7km 소요 시간 1시간 30분

안정은 러닝전도사와 함께!

봄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봄의 문턱에서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변덕을 부린다. 누그러진 바람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려고 하면, 이내 맹렬한 겨울 추위가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우리를 움츠러들게 한다. 계절과 계절 사이 서둘러 봄을 맞을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있다. 겨우내 굳은 몸을 깨우기 위해 안정은 러닝전도사가 다섯 명의 러너들과 한강에 뒀다.

글. 조서현 사진. 황지현 영상. 최의민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r u n n i n g

우리가 러닝을 사랑하는 이유

요즘 러닝은 스포츠이자 트렌디한 문화이다. 두 발로 도심의 속살을 구석구석 누빌 수 있는 데다, 현실에 치여 복잡해진 머리를 비우는 데에도 그만이고, 운동화만 있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너도나도 ‘달리는’ 추세다. 서울에서 가장 달리기 좋은 곳은 단연 한강공원일 터. 그중 잠수교와 세빛섬을 품에 안아 색깔이 뚜렷한 풍경을 그려내는 반포한강공원에 다섯 명의 러너들이 모였다.

“어제까지 눈이 많이 와서 정말 달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러닝을 하루 앞둔 날, 때아닌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따르면, 웬만해선 러너들을 막을 수 없다! “아외 운동이라고 해서 꼭 날씨가 좋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기도 하고, ‘폭우런’이라고 비를 맞으면서 달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은근히 스트레스가 풀린다니까요”라고 입을 모으

는 이들의 눈빛에서 묘하게 설렘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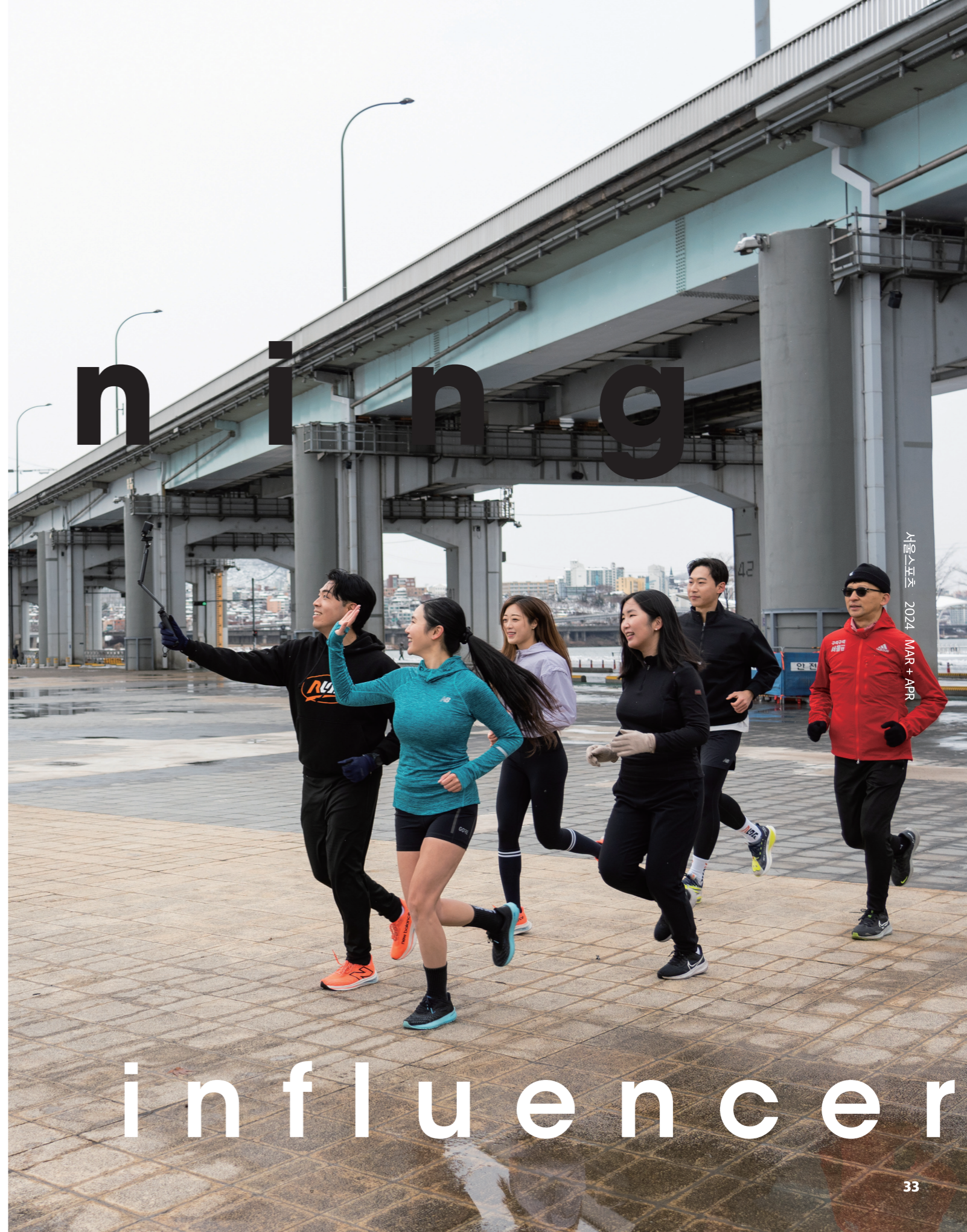
오늘은 서울 곳곳을 마음껏 누비는 러닝 동호회 ‘썬데이서울 러닝크루’와 ‘알로그’에서 활동하는 러너들을 만났다. 알로그의 대장 장선웅 씨는 “2024 서울마라톤을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어요”라며 기대감을 내비친다. 러닝을 향해 똑 같은 크기의 애정을 드러냈지만, 사실 이들의 경력은 천차만별이다. 모자, 장갑, 선글라스까지 챙겨 쓴 모습에서 러너의 포스가 제대로 느껴지던 성상현 씨(썬데이서울 러닝크루)는 ‘11년 차 러닝 고인물’이라 자신을 소개한다. 반면 조형빈 씨(알로그)는 6개월 차 신입 러너로서 열정이 가장 물울랐을 때란다. “오늘 저녁에는 크루 정기모임이 있어요. 잠실에서 달릴 예정인데, 체력 안배를 잘 해 봐야죠”라며 1일 2러닝의 계획을 전한다. 송지영 씨(썬데이서울 러닝크루)는 출산과 육아로 한동안 운동을 멀리하다 이제야

인플루언서와 함께



오늘의 러닝메이트 ‘안정은 러닝전도사’

스포츠 문화행사 기업 런더풀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러닝전도사 안정은’을 운영하는 유튜버로서 건강한 달리기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서울을 달리는 100가지 방법>,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중이야> 등을 펴냈다.



서울스포츠 2024 MAR + APR

influencer



“오로지 두 발로 내가 원하는 길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닿길 응원한다는 말로 러닝 클래스는 끝이 났다. 하지만 러닝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아서일까. 그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두둥실 떠오른 마음에 서둘러 꽃이 핀다.”

다시 시작하는 단계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과 달리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러닝을 향한 열정과 애정으로 똘똘 뭉친 이들을 위해 안정은 러닝전도사가 일일 러닝메이트를 자처했다. 함께 달리는 것은 물론, 마라톤 완주의 팀까지 건넬 작정이다. 함께 달릴 동료이자 선생님의 등장에 다섯 사람의 눈이 더욱 빛난다.

러닝도 기초가 반이다

러닝은 말 그대로 '달리는 운동'이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면 안 된다. 특히 오늘처럼 날씨가 곳을 때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은데, 첫 번째는 준비 운동이고, 두 번째는 복장이다.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니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환절기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아요. 장갑이나 모자도 꼭 챙기고요.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급

격히 떨어지는데, 그럴 때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안정은 러닝전도사의 구호에 맞춰 발목부터 손목, 허리까지 천천히 돌리며 굳은 근육들을 깨운다. 러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달려 나가기 전, 송지영 씨가 질문이 있다며 운을 떼다. "육아 때문에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근육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막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괜찮을까요?" 그의 말에 안정은 러닝전도사는 같은 경험이 있다며 공감한다. "저도 그랬어요. 중심 잡기조차 힘들었고, 폼을 다시 올리는 데도 시간이 걸렸죠. 처음부터 욕심내기보다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시작해 보길 추천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금세 예전처럼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송지영 씨. 다른 러너들과 열을 맞춰 저만치 사라지는 뒷모습이 꽤나 즐거워 보인다.

계절을 만끽하는 확실한 방법, 러닝

달려 나간 길을 되돌아오는 이들의 표정은 설렘이 보람으로 바뀌어 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도 활짝, 표정도 활짝 핀 걸 보니 다섯 사람이 뿜어내는 열정의 온도에 추위도 그 기세가 꺾인 듯하다. "준비 운동만큼 중요한 게 회복 운동입니다. 달리는 동안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스트레칭은 필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꼭 찬물로 샤워하길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때보다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거든요.” 안정은 러닝전도사의 말에 러너들은 팔과 다리를 쭉쭉 늘이며 스트레칭 삼매경에 빠진다.

봄은 러닝의 계절이다. 3월부터는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수시로 열린다.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순히 '완주'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준비를 하며 달린 수백, 수천km로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 생각하면 한 걸음 더 달릴 힘이 생긴다. 게다가 30분 이상 달리다 보면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감싸는데 그런 '러너스하이'를 상상하는 것 또한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러너들에게 서울은 천국이다.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코스'라 불려도 좋을 만큼 달리기 좋은 길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안정은 러닝전도사는 하늘공원을 꼭 달려 보라고 얘기한다. 하늘과 맞닿은 듯한 그곳에서 푸르른 하늘을 어깨에 걸치고 달리다 보면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앞서 최선영 씨(알로그)가 "러닝은 차창 밖으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게 매력이에요"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오로지 두 발로 내가 원하는 길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닿길 바란다. 응원으로 러닝 클래스는 끝이 났다. 하지만 러닝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아서일까. 그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지 않는다. 두둥실 떠오른 마음에 서둘러 꽃이 핀다. 발걸음을 재촉해 달려간 그곳에 봄의 소식은 아직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봄바람이 살랑이는 듯하다.



서울시청 조명우 선수와 만난 당구 동호회 인생큐

운명의 큐처럼 행운 같은 오늘이 다가오다

3쿠션 세계 최강자 조명우 선수가
당구 동호회 인생큐 회원들의 일일 선생님이 되었다.
‘팬심’을 담은 질문을 통해 알찬 팁을 전수받은 인생큐 회원들은
오늘을 영광스럽게 보관한다.

글 임산하 사진 황지현

운명의 큐처럼
행운 같은 오늘이

서울스포츠 2024 MAR + APR

진지하게 열의를 불태우는 인생큐 회원들

당구를 치다 보면 무게, 균형, 팁 등이 맞는 큐를 만나게 된다. 그것도 딱 한 번. 운명의 상대를 만나듯 큐가 나에게로 오는데, 이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인생큐'. 오늘 조명우 선수와 만난 당구 동호회의 이름이다. 당구에 대한 애정으로 뭉친 이들은 2021년경부터 함께하기 시작했다.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모여 서로에게 당구를 가르치고 또 배운다. 서대문구청장배, 강북구청장배 등의 대회에서 값진 성적을 거두었고, 팁 제조사 '아이엠팁'의 후원도 받는 중. 이들은 매일 같이 노원구의 '인생큐 공방'에서 열의를 불태우는데, 인생큐 공방의 사장이자 초대 회장은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이다. 실제로 그는 프로당구(PBA) 최연소 선수를 만드는 데도 조력한 실력자인데, 바로 김영원 선수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따뜻한은 자연히 인생큐 회원들에게도 전해져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된 배려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으니,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다는 것. 실력보다도 인성을 중시하여 가입 심사가 까다롭다고 말하는 이장근 회장. "저희는 심사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돼요. 그 기간 동안 사람을 보죠. 실력은 이후에 함께 배우고 고민하며 얼마든지 익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인성은 그러지 않거든요. 게다가 당구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중요하잖아요."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인 만큼 서로에게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특히 3쿠션 세계 1위에 빛나는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당구팀 조명우 선수를 만나는 만큼, 이 시간을 더욱 진지하게 보내고자 다짐하는 이들도. 계속해서 3쿠션 연습을 하며 서로 고민을 나누는 모습에서 그 마음이 엿보인다. 그렇게 당구대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한창 열의를 불태우던 그때, 인생큐 공방의 차임이 울린다. 조명우 선수가 입장하는 그 순간, 인



“세계적인 선수를 만나는데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라고 했던 말이 문득 스친다. ‘짝사랑’과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팬심’이 아닐까. 너무 좋아서 순간 얼어 버리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이들이 얼마만큼 당구에 진심이고 또 오늘을 기다려 왔는지 느껴진다.





생큐 회원들의 얼굴에 설렘이 어린다. 박수를 받으며 발걸음을 옮기는 조명우 선수도 축스럽다는 듯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는 큐케이스를 열고 준비를 하자마자 바로 눈빛이 바뀐다. 이제 시작이다.

팬심을 담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인생큐 회원들의 일일 선생님이 되신 조명우 선수. 오늘 회원들은 당구를 치며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뒤이어 간단한 미니 게임도 진행한다. 그런데 조명우 선수를 사이에 두고 선 인생큐 회원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앞서 이소운 회원이 “세계적인 선수를 만나는데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라고 했던 말이 문득 스친다. ‘작사랑’과 ‘채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팬심’이 아닐까. 너무 좋아서 순간 얼어 버리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이들이 얼마만큼 당구에 진심이고 또 오늘을 기다려 왔는지 느껴진다. 마침 정현태 회원이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진다. “샤름엘셰이크 3쿠션 월드컵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을 때, 호흡을 가다

듬고 찢던 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한 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당시를 회상하며 공을 배치하는 정현태 회원. 공을 보자마자 “제가 이걸 쳤다고요?”라며 스스로도 놀라는 조명우 선수다. “기회는 3번 드릴게요”라며 회원들이 그를 안심시키지만, “5번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라며 농담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순간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완벽한 3쿠션을 보여 주는 그다. “지금 이 자리가 경기 때보다 더 긴장되네요”라고 하지만 세계 챔피언의 면모에는 흔들림이 없다. 다들 어떻게 친 건지 덧붙여 묻는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이 알아서 돌아가 맞으라고 세게 쳤어요.” 물론 이는 정확한 계산과 자신감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 이어 “조명우 선수 하면 파워샷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두껍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라며 동시에 질문이 터진다. “비율로 답변을 드리자면 키스 때문이 60%이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 40%예요.” 조명우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는 이 시간, 인생큐 회원들의 질문을 듣다 보니 이들의 일상에는 언제나 조명우 선수가 함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당구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이들이고, 조명우 선수를 빼 놓고는 결코 당구를 논할 수 없기에.

영광스럽게 펼친 일대일 당구 경기

조명우 선수의 당구 팁을 들으며,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인생큐 회원들. 다음은 조명우 선수와 함께하는 미니 게임이다. 인생큐 회원 중 3명이 조명우 선수와 경기를 치를 예정. 질문 시간에 열심이던 정현태 회원과 이소운 회원, 여기에 본래 겨루기로 했던 김종호 회원 대신 이창근 회장이 참여한다. 사실 김종호 회원은 인생큐 내에서도 알아주는 조명우 선수의 ‘찐팬’으로, 오늘의 만남을 너무나도 고대했다고 한다. 저녁에 시작한 이번 클래스에 혹여나 늦을까 봐 퇴근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숨 가쁘게 뛰어 왔을 정도. 그런데 경외하는 선수와 경기를 치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린다고 극구 손사래를 치는 그다. 조명우 선수가 날카로운 자세로 게임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에게서 순수한 진심이 전해진다. 세 번의 게임은 모두 조명우 선수의 승리로 끝났다. 중간중간 “이기면 어떡하죠?”라며 우스갯소리를 하던 회원들이지만, “실은 정말 떨렸어요”라고 속마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다. “역시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다는 이소운 회원. 강북구청장배 겸 연맹회장배 당구대회에서 3등에도 올랐던 그에게는 조명우 선수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저력이 보이기도 했다. 오늘의 경험이 다음에 출전할 당구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

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까. 어쩌면 승리보다 값진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라며 환히 웃는 정현태 회원. 그는 몇 년 전, 강동구 길동의 DS 빌리어즈 당구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조명우 선수를 만나 두 게임을 친 적이 있다. 인상 깊었던 당시를 기억하는 그에게 오늘 새로운 추억이 하나 더 쌓였다. 끝으로 “손이 나가지 않을 만큼 긴장됐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이창근 회장은 진심을 다해 덧붙인다. 너무나도 영광이었다고. 조명우 선수도 오늘의 소감을 전한다.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당구를 치는 건 좋아하는데, 말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을 끝내고 돌아서려는 조명우 선수 곁으로 회원들이 큐케이스를 들고 선다. 하나하나 사인을 하고 난 뒤, 조명우 선수는 특별히 김종호 회원에게 당구장갑도 선물한다. 실력도 마음도 세계 랭킹 1위인 조명우 선수와 함께한 당구 동호회 인생큐 회원들. 단 몇 시간으로 이들의 실력이 급성장할 수는 없었을 테지만, 적어도 이들이 다시금 당구에 대한 열망을 깨우고, 열정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몽치면 한다

시원스포츠 2024 MAR + APR

축구 꿈나무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필드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초등부 축구 전문선수반

유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 강습을 진행하는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자랑은 단연 축구 유망주를 육성하는 전문선수반이다. 축구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초등부 축구 전문선수반(이하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을 만나 보자.

글 조서현 사진 황지현

언제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곳

날쌔 움직임, 가벼운 발놀림에 축구공이 속수무책 사방을 나뒹군다. 그리고 엇된 얼굴과 달리 축구공을 향해 매섭게 달려드는 선수들의 작은 발자국이 그 뒤를 따라 찍혀 있다. 아직 완전한 파스함을 느끼기에는 조금 이른 3월 초, 쌀쌀한 공기마저 가쁜 숨으로 데워 버리는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경기장에 들어서자 발견한 뜨거운 흔적이다.

2018년 대한체육회 지역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이어져 온 이곳.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전문적인 축구 강습을 받는데, 선수 중에는 영등포구 구민이 많다. 이에 대해서 노태주 감독이 그 의미를 설명한다. “이 지역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고 이름 있는 선수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팀의 목표입니다. 축구팀 시스템 자체가 스카우트 제도 없이는 잘 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영등포 내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발맞춰 마음 맞춰 함께 뛰는 팀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은 지난해 영등포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스토브리그IN영등포’와 같은 축구 교류전에도 참가하며 입지를 넓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서귀포 칠십리 춘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출전해 하위리그 조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성과와 별개로, 대회 참가는 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 강팀을 만나면서 승리를 향한 목표를 일깨우기도 하고, 동료와 값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사기를 올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인데도 경기장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해요. 이겼을 때에는 함께 행복감을 느꼈지요. 그리고 다음 경기를 더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격려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어요.” 6학년 오준영 선수가 그날의 대회를 떠올리며 경험을 통해 배운 바를 전한다. 이전 치열했던 대회를 지나 다시 충실한 준비에 돌입한 시기다. 평소 이곳에서는 선수의 장점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강습을 진행하는데, 가능하면 교체 선수 없이 경기를 이어 나

가며 선수마다 여러 포지션을 경험할 수 있게 노력한다. “좋은 성적도 좋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하다 보면 기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의 기량과 특징을 고려하고 최대한 그에 맞춘 훈련을 진행하려 해요.” 노태주 감독의 말이다.

최근 가장 집중하는 훈련은 패스와 슈팅 같은 기초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것. 선수들은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장을 10바퀴, 20바퀴씩 뛰곤 한다. 4학년 전시우 선수는 “체력 훈련은 항상 힘들지만, 경기를 뛰다가 문득 계가 잘 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뿌듯함을 느껴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라며 씩씩한 면모를 보인다. 물론 팀에서 이뤄지는 교육에는 인성을 갈고 닦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에 팀보다 본인이 앞서 나가려 하는 마음을 경계하게끔 돕는다. 함께 훈련하는 동료들을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당겨 주며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것까지가 좋은 선수로서의 자질이다.



“좋은 성적도 좋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하다 보면 기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의 기량과 특징을 고려하고 최대한 그에 맞춘 훈련을 진행하려 해요.”

노태주 감독



몸치만 한다



오늘의 가능성을 믿고 내일의 나를 기대해

선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믿어 주는 것 또한 이곳이 지닌 특징이다. 선수 육성을 기본으로 하는 반이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팀 입성의 문을 너그럽게 열어 주려 한다는 것. 노태주 감독은 어릴 적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선수들 외에도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10년간 고등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실력이 향상되는 친구들을 봤어요. 아직 초등학교에 불과한 친구들인데 그 나이 또래의 잘하는 선수와 비교하면서 당장 가능성을 단기보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2년째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에서 강습받는 오준영 선수 또한 이곳에서 많은 성장을 이뤄 냈다. 경기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경쟁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습관을 버리고 상황에 부딪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훌륭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손흥민 선수가 롤모델이라는 오준영 선수는 무엇보다 힘든 순간에 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격려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자신의 성숙한 모습에 만족스러워 했다.

축구를 ‘땅부터 우주만큼’ 좋아한다는 전시우 선수는 훗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축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곳을 찾아 매일 2시간씩 부지런히 연습하며 꿈에 다가가는 중이다. “제가 반에서 기술력만큼은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앞으로 호날두

선수만큼 헤딩도 잘하고 기술력도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선 대회에 많이 나가고 연습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골대를 향해 날리는 희망의 슛

“축구를 취미반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전문선수반에서 충실하게 과정을 밟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반에는 선수의 길을 걷기 위해 중학교 진학을 고려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축구선수를 꿈꾸든 그렇지 않든 전문선수반을 졸업하면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국민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흔하게 접하는 종목이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에 속한 유소년 선수들은 함께 뛰고 호흡하며 도전의 경험을 얻고 끈기를 배운다.

다가오는 4월, 선수들은 축구 교류전을 앞두고 있다. 또 저학년은 외부 대회를, 고학년은 중학교 진학 경기를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매일 계획된 훈련들을 차근 차근 해 나갈 생각뿐이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꿈의 불씨를 키우고 열정을 태우고 있는 이들. 앞으로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의 작은 거인들이 쏘아 올린 공이 이뤄 낼 통쾌한 ‘골인’을 지켜봐도 좋겠다.

서울스포츠 2024 MAR + APR

스포츠 중계, 이제는 뉴미디어로

스포츠 중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OTT 플랫폼이 스포츠 중계에 나서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 중계 콘텐츠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글: 김현식

스포츠 중계 문화의 키워드

예전에는 큰 TV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스포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을 응원했다. 2000년대 즈음에는 호프집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응원을 하기도 했다. 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에 국한되지만 전광판 화면 속 경기를 보고 광장에서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스포츠 중계 문화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국가 대항전,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기가 있을 때, 특히 일본과 벌이는 전쟁과도 같은 경기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경기 결과에 따라 그 긴장감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도 같은 경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대부분은 스포츠 경기를 보지 않는다. 실제로 평소 스포츠를 즐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생활 속에 스포츠가 없고 오로지 국가 대항전에서 이기기 위한 엘리트 선수 위주의 정책이나 미디어의 흐름이 계속됐다.

OTT가 치고 올라오는 스포츠 중계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스포츠를 다룬 형태로 즐기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먼저 레거시 미디어인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점을 짚어 봐야 한다. 토종 OTT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스포츠 중계에 나서는 상황이다. 티빙은 올해 월 이용자 수(MAU)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OTT가 1,000만 명을 기록한 적은 없다. 토종 OTT에게는 계획도 없던 꿈의 수치다. 티빙이 1,000만 명을 자신 있게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 프로야구(KBO) 리그 중계 때문이다. 티빙을 운영하는 CJ ENM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프로야구 중계 서비스를 독점한다. 국내 스포츠 가운데 가장 팬이 많은 것이 프로야구다.

더구나 독점적 유료에 자신감이 배어 있다. 티빙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데, 포털 사이트 등에 재판매 계획은 없다고 밝혔

다. 올해부터 PC나 모바일을 통해 프로야구를 시청하려면 최소 월 5,500원 이상의 구독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광고 사업 성장세도 예상할 수 있다. 프로야구에서 광고 효과는 대단하다. 또한 기존 프로야구 리그 중계 때도 공수 교대 또는 경기 진행 시 중간마다 광고가 송출되어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하는 데 거부감이 적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티빙도 광고 요금제를 프로야구 중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티빙 가입자의 20~30%가 광고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통해 프로야구 중계로 광고 사업 성장세가 예상된다. 현재 달성한 유료 가입자 수 400만 명을 넘어 올해 500만 명을 기록해 하반기 안에 손익분기점(BEP)을 넘긴다는 것이다. 그만큼 스포츠 콘텐츠가 갖는 파급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토종 OTT가 스포츠 중계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반응은 괜찮았다. 쿠팡플레이 앱 월 이용자 수(MAU)가 급증한 바 있는데, 이 배경에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제58회 슈퍼볼',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등의 중계가 깔려 있다.

한국 프로축구(K리그)도 개막에 맞춰 해외에서도 이용자 수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제시 린가드가 FC서울에서 K리그를 뛰기 때문에 해외 팬들이 독점 중계하는 쿠팡플레이로 몰릴 것이 예상된다.

오히려 재미있어, 색다른 입중계

이렇게 독점 중계방송을 하면, 즐길 여지가 제한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입중계' 방식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입중계'는 실제 경기 화면과 소리는 제공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는 출연진의 반응과 해설만을 송출하는 인터넷 방송을 일컫는다. 경기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 뉴미디어 플랫폼 외에는 저작권 때문에 경기 장면을 자신의 콘텐츠에 사용할 수 없게 되니 하나의 우회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다. 입중계를 하는 이들은 현장 화면과 소리를 제공하지 못하기에 오로지 말로만 경기 상황을 전한다. 이 때문에 진행 포맷은 라디오 중계방송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

므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기존 방송에서 제한된 표현을 하던 캐스터나 해설위원도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당연히 이용자와의 소통도 자유롭다. 그만큼 스포츠 경기를 앞에 두고 이용자와 공감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셈이다.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이 할 수 없던 장점이 깃들어 있다. 진행자들도 자신들의 개성이나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팬덤 형성까지 가능하다. 재미있는 대목만 따로 편집해 리액션 영상을 올리기도 한다.

스포츠 중계는 새롭게 진화하는 중

2040 직장인들이 바쁜 일과 후 퇴근길과 저녁 식사 시간대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점에 주목해 제작한 것이 tvN SPORTS 유튜브 '퇴근길 LIVE'인데, 지난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때는 무려 새벽 4시에 방송을 했다. 16강전이 4시경에 끝났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라이브 시청자에 8만 명 이상이 몰리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더구나 한국 축구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 120분 연장전과 승부차기 혈투 끝에 상대를 극적으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화제성을 갖기에 더욱 충분했다. 중계방송과 다른 점은 인터뷰다. 특히 승부차기 선방을 한 '빛현우' 조현우 선수 인터뷰가 이뤄질 때, "눈이 부시다"며 선글라스를 낀 배성재 캐스터와 김환 해설위원의 모습이 더 주목을 받기도 했다. 승부차기에서 조현우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3, 4번 키커의 슈팅을 연이어 막아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방식은 플랫폼이나 콘텐츠 포맷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과의 소통과 진정성일 것이다. 최대한 온전히 누리게 할 때 더 발전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글을 쓴 김현식은 문화평론가이자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이다.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디어, 문화정책을 공부했다. 다양한 매체에서 미디어, 문화, 사회 관련 평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문화로 읽는 세상> 등이 있다.

장애인의 체육의 시작은

스포츠의 ESG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추어 동기와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재활체육

마라톤, 자전거, 피트니스클럽 등 다양한 스포츠를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사고 전의 스포츠 활동을 이어 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할 줄 알던 것을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가 있고 또 그 종목의 장애인 선수들이 이미 비장애인 못지않은 스포츠 역량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기능을 배워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2년이 걸리고, 10살은 되어야 뛰는 모습에 멋이 들기 시작하듯이 장애인으로 다시 태어난 이 사람도 휠체어를 사용해 돌아다니고, 또 스포츠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체육교육(physical education)이 필요하다. 휠체어에 올라타야 하고, 앉은 자세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팔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몸통을 잘 조절해야 한다. 바깥의 노면, 경사로 등 걸림돌에서는 상당히 고급 기술을 익혀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는 종목에 맞는 특수한 휠체어가 필요하며 그 기술을 배워야 한다.

재활체육은 이러한 장애인 체육교육(특수체육)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재활체육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춰 최적의 운동 동작을 가르치고 적합한 스포츠 참여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체육’ 하면 통합체육을 떠올리는데 이와는 다르며, 통합체육 전 단계에 해당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있고, 또 다양한 장애 유형이 같이 있는 그룹이 함께 운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통합체육이라면, 재활체육은 같은 장애 유형이 모여 그 장애 유형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애 유형에 맞춘다는 의미에서 재활치료(물리치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활체육은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야겠다는 동기를 만들어 주고, 또 그룹운동으로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 재활치료와는 프로그램 구성부터 다르다.

주체성을 가지는 생활체육으로 이어지기 위한 발걸음

장애인 체육의 시작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주안점은 장애가 ‘선천’이나 ‘중도’냐이다. 사고로 척수 장애인이 된 중도 장애인과 달리 뇌성마비에 의한 선천적 장애인은 자신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성인이 되기 일쑤다. “전 이렇게 땀 흘리며 숨차게 운동한 게 처음이에요.”, “몰랐는데, 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실제로 운동을 시킨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얘기다. 12년의 초·중·고 학창시절 동안 적절한 체육 교과과정도 없지만, 장애 유형을 잘 모르는 체육교사들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장애 학생을 열외로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치료실에 간다고 조퇴까지 한다면 그 장애 학생은 ‘아파서 운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또 장애 학생은 스스로를 ‘운동을 못하는 사람’을 넘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중도 장애인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 적절한 운동 방법에 대한 교육이 주로 필요하다면, 선천적 장애인에게는 재활체육으로 운동 방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심어 줘야 한다.

재활체육 단계를 거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으로 가능한 기본 운동 동작을 익히고 그에 적합한 스포츠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종목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할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성을 가지는 생활체육으로 전이된다. “난 휠체어농구를 할 거야”라고 마음먹으면 휠체어농구팀을 찾아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좋아 재활치료를 받는 게 어렵지 않으나, 재활체육 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지만 재활체육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날다르다.

글 이민구

재활체육에서부터

가서 함께하면 된다. 팀에 들어가면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선배 선수에게 농구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한다. 생활체육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유형별 전문성보다는 종목별 전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신체활동 생애주기 속 재활체육의 중요성

재활체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이 다양하듯, 시설도 다양해야 한다. 활동 반경이 넓지 않은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에게는 넓은 시설보다 작은 공간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 반면, 지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또 경증 지체 장애인의 경우 더 큰 규모의 시설이 적합할 수 있다. 신체활동이 아직 미숙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 시설은 작더라도 집과 일터 근처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활체육은 접근성보다는 종목에 맞는 공간과 시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장애인육상은 트랙에서, 휠체어농구는 농구 코트에서, 파라 카누는 하천에서, 파라 아이스하키는 아이스링크에서 하게 되니 그런 시설을 배리어프리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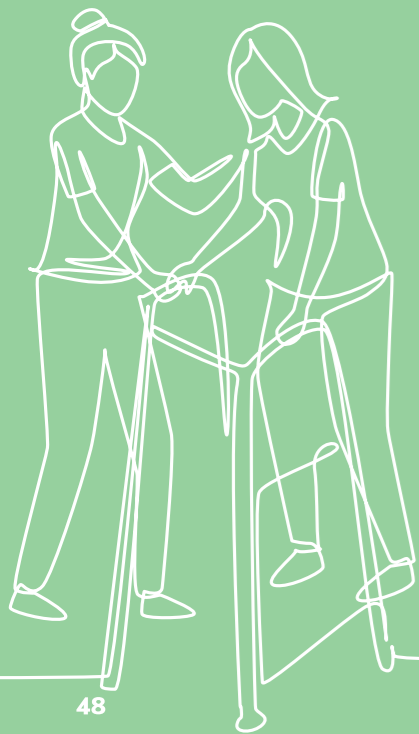
장애인의 신체활동 생애주기는 병원의 재활치료 단계부터 사회로 나와 재활체육 단계를 거쳐 장애인 생활체육에 이르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단기간에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체육 참여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좋아 장애인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재활체육 시설이 빈약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재활체육의 단계 없이 종목별 생활체육 단계로 이전하라는 것은 마치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달리기와 앞구르기를 배워야 할 초등학생에게 야구 규칙을 가르치고 배트와 글로브를 쥐어 주는 것과 같다.

재활체육은 평생 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실에서 나온 장애인이 빨리 생활체육으로 넘어가는 재활체육 프로그램이 좋은 재활체육 프로그램이다. 또 장애 유형마다 적용 기간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 인지 장애가 있을 경우 6년이라는 가장 긴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치료실이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인식 개선도 재활체육 시스템 마련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활체육부터 장애인육상 전문체육까지 시행하고 있는 우리 (주)좋은운동장에서는 치료실을 전전하는 장애학생과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10년 동안 치료실 열심히 다니면 국가대표 환자가 되고, 10년 동안 운동장 열심히 나오면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글을 쓴 이민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고실 교수로 있다. 뇌병변 장애인과 척수손상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 개발과 장애인 육상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활체육과 장애인스포츠로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적 독립을 지원하는 (주)좋은운동장을 함께 운영한다.

서울스포츠 2024 MAR + APR





마포구체육회 발전을 이끄는 이원범 회장을 만나다



Q. 지난해 말 마포구체육회 4대 회장으로 당선되며 연임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방에 들어오니 “노력은 성공을 약속한다”라는 글귀를 표구한 액자가 눈에 띄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A. _____ 어떤 방면에서든 노력 없이 생기는 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을 매일 직접 확인합니다. 대표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신경 쓰죠. 마포구체육회도 소속된 협회들과 구민들이 편안한 체육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액자 속 글귀처럼 마포구체육회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Q. 마포구체육회에서는 마포구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데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센터를 운영할 때의 철칙이 궁금합니다.

A. _____ 축구, 배드민턴 등 유명한 종목이 아닌 생소한 종목들은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진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마포구에서 이러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종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종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센터 운영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우수한 시설을 갖춘 마포구민체육센터는 협회들의 대관 문의가 많은데 어떤 종목의 협회든 대관 신청을 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올해 마포구체육회에서 특별히 준비 중인 행사가 있나요?

A. _____ 마포구는 넓은 데다 한강을 끼고 있어 달리기 좋은 동네입니다. 월드컵공원에서는 이미 여러 마라톤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에 힘입어 마포구를 마라톤의 성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포구민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Q. 마포구체육회와 마포구체육회 직원들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_____ 우선 구 체육회 25곳 중에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 모든 종목 협회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회의실이 있어서 협회 간 일정을 조정해 미팅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의 협회는 따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회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회장으로 당선되면 반드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통합 회의실을 만들었죠. 직원들도 모두 마포구민의 체육 생활을 돕고자 하는 열의가 강합니다. 대부분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체육인 출신의 청년들이죠. 이런 인물들이 마포구민을 위한 체육 지도를 하니 마포구민들의 건강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활기찬 마포, 그 중심의 마포구체육회

뛰기 좋은 망원한강공원 근처에 자리한 마포구체육회는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했다.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날부터 한결같이 마포구민의 건강 증진 및 체육 생활을 위해 달려온 이곳이다.

진행. 황영찬 글. 허승희 사진. 황지현

모든 스포츠를 품는 마포구체육회

역량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마포구체육회는 항상 지금 너머를 본다. 구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 배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는 것.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마포구체육회의 운영을 보니 마포구민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마포구체육회는 어떤 스포츠든 인정한다. 다 같은 체육 활동이기에 더 많은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소한 종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마포구체육회만의 신념이 있기에 더 많은 체육인의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닐까. 올해만 해도 6개의 협회가 추가되어 총 34개의 협회가 마포구체육회를 함께 빛내고 있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40개의 종목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원범 회장을 필두로 앞으로 나아가 마포구체육회의 찬란한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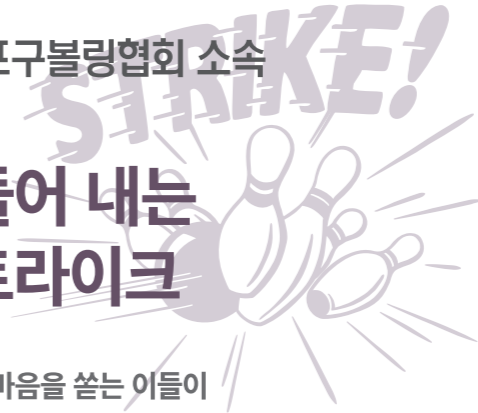
“
 볼링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면,
 일단 신발을 신고 볼링장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처럼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정확한
 자세와 기술적인 방법을 배우시길
 추천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낄 거예요.”

HARMONY



마포구체육회 마포구볼링협회 소속
 하모니 볼링클럽

화합이 만들어 내는 열정의 스트라이크



볼링에게도 사람에게도 마음을 쏟는 이들이
 모였다. 레인 너머 핀은 쉽게 쓰러트리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
 는 하모니 볼링클럽이다.

글. 임산하 사진. 황지현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 되는 하모니

모든 것은 이름을 따라 간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름에는 보통 기대와 바람을 담
 곤 한다. 이 때문에 이름값을 하기란 참 힘든데, 하모니 볼링클럽은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해낸다.

하모니. 화합을 뜻하는 단어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들은 클럽 회원 모두가 ‘가
 족’이라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 왔다. 클럽의 역사는 30여 년이 되었고, 마
 포구볼링협회 소속으로 활동한 것은 8년째다. 탄탄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하모니
 볼링클럽은 마포구볼링협회 내에서도 그 역할을 다한다. 함께 하는 일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생을 위한 건의도 아끼지 않는다.

현재 하모니 볼링클럽을 이끄는 이상엽 회장은 클럽 회원이 된 지 25년이 되었다.
 그러니 하모니 볼링클럽과 삶을 동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혼일 때 참여
 해서 결혼을 한 뒤에는 가족 모두가 이곳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그에게 하모니 볼
 링클럽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가 느껴진다. 다른 회원들도 비슷하다. 실제로 부부,
 장모와 사위 등 가족 구성원이 모여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소중
 한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을 만큼 하모니 볼링클럽이 회원들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금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중인데, 최근에 가입해서 한 번 나오셨던 분이 새로운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하셨대요.” 이
 상엽 회장의 말끝에는 기쁜 마음이 어린다. 이들의 응집력이 융화에서 온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볼링을 향한 남다른 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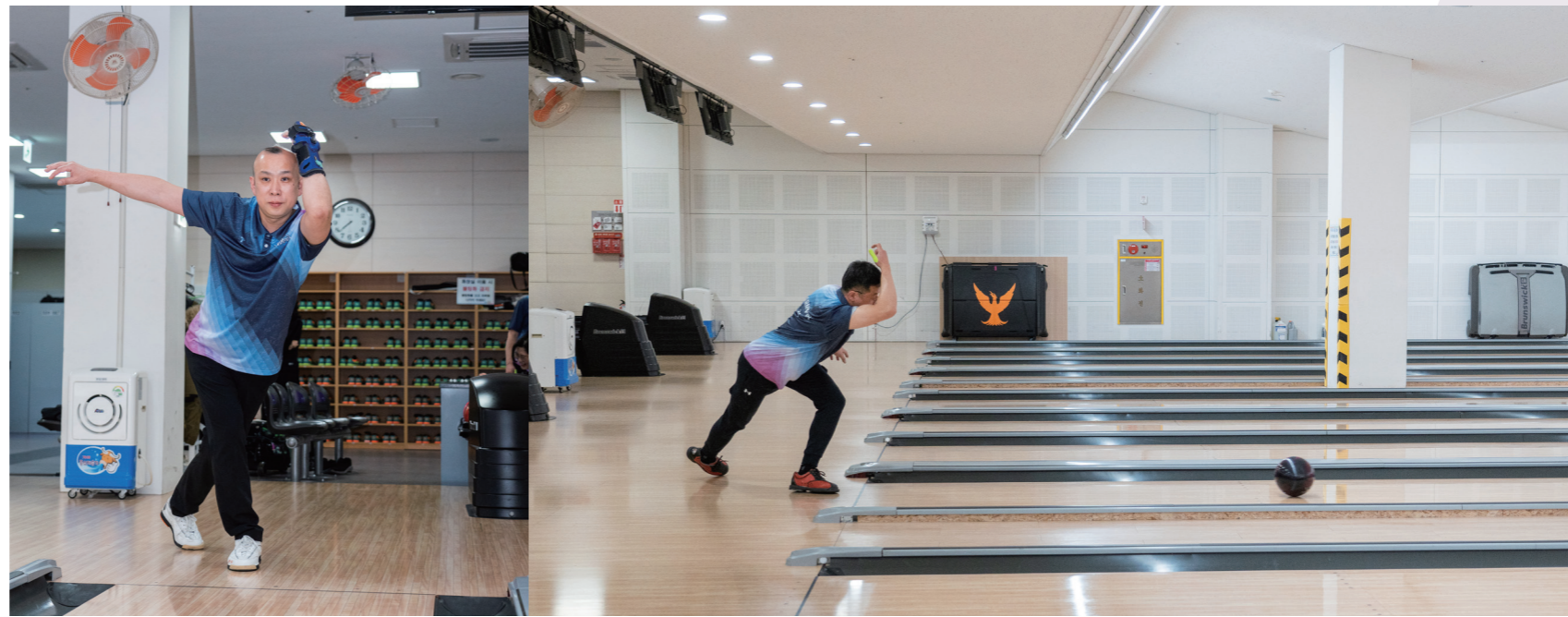
가족이 편한 이유는 사회에서 오래 써야 하는 가면을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겹 벗겨진 모습이 아닌 그저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사이이기에. ‘하모니 볼링클럽은 가족이다’라는 모토를 가진 이들은, 이곳에서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허물없이 자신을 내보인다. 결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모니 볼링클럽에 오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자부하는 이들이다.

“저희는 편하게 형 동생 하면서 지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역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낮가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면 웃을 일도 더 많아져요.” 미소를 띠며 말하는 서경희 총무. 그의 옆에 있던 박시중 회원이 덧붙인다. “다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에게 털어놓듯이 이곳에서 푸는 거죠. 볼링을 치며 힘들었던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더 친해지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질 때에는 욕심이 나기 마련인데, 볼링에 대한 애정만큼 제대로 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지는 않을까. ‘퍼펙트맨’으로서 마포구볼링협회에 이름을 올린 이상엽 회장은 “볼링은 나와야 싸움이지만, 승부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테지요. 그러나 열정을 다하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한다. 그에게서 볼링을 사랑하는 이의 결연함이 느껴진다.

이때 한장성 회원도 볼링을 향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볼링공을 들고 레인 앞에서 나만의 공간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것만 같지요. 실은 제가 암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볼링을 만나서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완치판정까지 받았으니 볼링으로 항암치료를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더불어 박시중 회원은 볼링이 “삶의 활력소”라고 말한다. 그는 어릴 적 볼링공이 너



“하모니 볼링클럽의 내일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이상엽 회장

하모니 볼링클럽은 가입 기간이 최소 7년일 정도로 언제나 정예 멤버들과 함께였습니다. 돈독함이 하모니 볼링클럽의 자부심이죠. 게다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볼링장에 나올 때마다 늘 넉넉해지는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하모니 볼링클럽 회원들이 더 행복하게 볼링을 칠 수 있도록, 또 마포구볼링협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볼링의 장점이 모두에게 닿길 바랍니다”



서경희 총무

약 30m 떨어진 자리에서 핀을 정확히 가격하는 일에는 굉장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을 기르기에 좋죠. 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스트레스도 사라져요.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스포츠예요. 특히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는 스포츠라서 경쟁보다는 격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무 갖고 싶어서 겨울에 공사장에서 일을 해 번 돈으로 난생처음 공을 샀다고 한다. 그만큼 볼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그. 어쩌면 이는 하모니 볼링클럽의 회원들 모두가 갖는 공통된 마음일지도 모른다. 볼링이 각자의 삶에 동력이 되니,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실력도 으뜸, 마음도 으뜸

하모니 볼링클럽의 회원들은 볼링의 매력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볼링을 시작하고 싶는데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면, 일단 신발을 신고 볼링장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처럼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정확한 자세와 기술적인 방법을 배우시길 추천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낄 거예요.” 한편, 올해는 마포구볼링협회에서 상주클럽 리그전을 진행한다. 처음 개최하는 것인데 클럽 대항전을 통해 우열을 가리고, 이후 토너먼트 경기를 연다. 이제 함께 볼링을 치며 쌓아 온 실력을 보여 줄 때! 이들은 입을 모아 “1등이 목표입니다!”라고 말한다.

“평균적으로 실력이 좋기에 상위권이 예상되고, 잘하면 우승권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엽 회장에게서 자신감이 엿보인다. 웬지 이들이 선전할 것이 눈에 그려진다. 볼링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아끼는 이들이 모인 하모니 볼링클럽. 애정도 체력이라고 했는데, 볼링으로 탄탄한 힘을 길러 놓았기 때문인지 이들의 가슴은 아직도 넉넉하다. 그러니 만약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하모니 볼링클럽은 어떨까.



파크골프를 향한 애정은 언제나 홀인원

서울특별시파크골프협회 정장수 회장

파크골프의 인기가 뜨거운 지금.

더 많은 서울시민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서울특별시파크골프협회(이하 서울시파크골프협회) 정장수 회장을 만났다.

진행 황영찬 글 임산하 사진 황지현

사람이 파크골프를 닦았다고 하면 비약일까. 차분한 자세로 집중력 있게 말을 잇는 정장수 회장에게는 이를 비약이 아닌 은유로 만드는 힘이 있다. 또한 그는 파크골프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2021년부터 서울시파크골프협회 회장을 맡은 그는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즐겁게 파크골프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전력으로 힘을 쏟는 정장수 회장의 모습에서, 수많은 서울시민이 파크골프를 기쁘게 즐기는 밝은 미래가 엿보인다.



HOLE IN ONE

Q. 최근 파크골프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스포츠의 인기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인기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_____ 파크골프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기는 골프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도심과 멀지 않은 장소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재밌게 소통할 수 있죠. 게다가 일반 골프는 카트를 타고 다니는데, 파크골프는 잔디 위를 직접 걷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배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려워지는데 현재 서울시파크골프협회가 자리한 영등포구에만 천여 명의 분들이 파크골프를 치시며, 오순도순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고 계십니다.

Q. 현재 서울시 내 파크골프 회원 수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_____ 서울시파크골프협회 산하에 21개의 구 협회가 있습니다. 아직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가 없는데, 강북구와 성북구는 올해 협회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개 구 협회의 등록 회원은 1만500명(1월 말 기준)이며, 매년 30~5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 파크골프장은 11개 뿐입니다. 파크골프를 즐기려면 타 지역에 가야 할 정도죠. 실제로 파크골프 원정을 위해 매일 5~7대의 관광버스를 운영해 이동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크골프대회를 주관하지만 장소가 없어서 다른 구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지난해 ‘서울시 파크골프,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여하시면서 서울시 파크골프장 증설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A. _____ 그곳에 모인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나였습니다. 파크골프의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었죠. 유의미한 토론회였고, 덕분에 올해 난곡지역에 들어설 관악구 파크골프장 조성의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파크골프협회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서울시파크골프협회는 지속적으로 ‘가족 파크골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 _____ 다들 여기저기 추천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가족 파크골프 교실’에 참여한 분들이 환히 웃는 얼굴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가족 파크골프 교실을 1년에 10회씩 운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년에 4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6회로 늘릴 예정이오니, 기다리신 만큼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서울시파크골프협회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벤트 대회는 파크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 중인 대회가 있으신가요?

A. _____ 이벤트 대회의 장점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즐길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벤트 대회를 선호합니다. 영등포파크골프협회장을 지낼 때에도 부부대회, 혼성대회 등 매월 의미 있는 대회를 열었죠. 올해 마포구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에 18홀 증설을 목표로 하는데, 5월 초쯤 멋진 이벤트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총 36홀의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개장 기념으로 전국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 2위 수성

지난 2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제7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행사에 앞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 개최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총 8개 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선수 및 임원 4,272명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열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에 선수 및 임원 776명을 파견한 서울특별시는 8개 종목에서 총 1,074점(금65·은50·동54)을 획득, 직전 대회보다 145점 상승해 경기도에 이어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한양대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진영진 선수(스피드스케이팅)와 원춘초 이지민 선수(알파인스키)가 각각 4관왕을, 서울시청 쇼트트랙팀의 김태성, 이정수 선수가 각각 500m와 1,5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달성하며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 구분 | 종목 | 소속 | 성명 | 성적 |
|-----|----------|--------------|-----|-------------------------|
| 4관왕 | 스피드/남초부 | 한양대 사범대학 부속중 | 진영진 | 5,000M/매스타트/3,000M/8주 |
| | 알파인/남초부 | 원춘초 | 이지민 | 대회전/회전/슈퍼대회전/복합 |
| 3관왕 | 쇼트트랙/여초부 | 강동초 | 손하나 | 1,500M/1,000M/2,000M릴레이 |
| | 쇼트트랙/남중부 | 신림중 | 이윤석 | 1,500M/1,000M/3,000M릴레이 |
| | 스피드/남중부 | 전동중 | 고정호 | 1,500M/1,000M/8주 |
| | 스피드/남고부 | 동북고 | 조승민 | 5,000M/10,000M/8주 |
| | 알파인/남일부 | 서울시청 | 박제윤 | 슈퍼대회전/대회전/복합 |
| 다관왕 | 쇼트트랙/남초부 | 당산초 | 박지환 | 1,500M/2,000M릴레이 |
| | 쇼트트랙/남대부 | 한체대 | 우준혁 | 1,000M/3,000M릴레이 |
| | 쇼트트랙/남고부 | 동북고 | 이광호 | 3,000M/3,000M릴레이 |
| | 쇼트트랙/남대부 | 한체대 | 이정민 | 500M/3,000M릴레이 |
| | 쇼트트랙/남고부 | 대광고 | 한병찬 | 1,000M/3,000M릴레이 |
| | 스피드/여고부 | 노원고 | 이나현 | 500M/1,000M |
| | 스피드/남중부 | 성내중 | 정연우 | 500M/8주 |
| | 알파인/남대부 | 한체대 | 김민형 | 회전/복합 |
| | 알파인/여초부 | 리라초 | 문지수 | 회전/복합 |
| | 알파인/여초부 | 코너스톤 서울아카데미 | 안서령 | 대회전/슈퍼대회전 |
| 신기록 | 알파인/남중부 | 서일중 | 전호영 | 복합/슈퍼대회전 |
| | 쇼트트랙/남일부 | 서울시청 | 이정수 | 1,500M(2분12초647) |
| | 쇼트트랙/남일부 | 서울시청 | 김태성 | 500M(40초894) |
| | 스피드/남중부 | 전동중 | 고정호 | 1,000M(1분14초17) |
| | 스피드/남중부 | 성내중 | 정연우 | 1,000M(1분14초92) |
| | 스피드/여고부 | 노원고 | 이나현 | 500M(38초39) |
| | 스피드/여고부 | 노원고 | 이나현 | 1,000M(1분18초41) |



2024년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2월 27일,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 대회의실에서 2024년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회자의 성원 보고 후 의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 말씀에 이어 전차 회의 결과, 임원 사임 및 보선 결과, 2023년도 정기 자체 감사 결과 등이 보고됐으며, 심의 사항으로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정관 개정(안) 등 2개 심의 사항 안건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제4차 서울특별시체육회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6일,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회의 결과, 임원 사임 및 보선 결과, 2023년 회원단체장 인준 현황 등이 보고되었으며 심의 사항으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 2024년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계획(안) 등 5가지 안건이 심의되었습니다.



2023~2024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33일 만에 10만 명 돌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 33일 만에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던 지난 1월 23일, 문가람(24세) 씨가 10만 번째 이용객이 되었습니다. 문가람 씨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너무 즐겁게 이용하고 있다”라며 “여름에도 스케이트장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2일 폐장한 2023~2024 시즌 53일 동안 13만 3,365명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았으며, 하루 평균 2,964명이 이용했습니다. 20년째 운영 중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2004년 첫 개장 이후 서울의 겨울철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올해까지 누적 이용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회원단체 뉴스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유망주 신규 입단

2024년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산악의 이도현, 펜싱 박지희, 쇼트트랙 박지윤 등 종목별 유망주 45명을 영입했습니다. 서울시청 선수단은 총 23개 종목 25개팀 188명이 서울시를 대표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신규 선수의 입단으로 전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 중 2022년 창단한 산악팀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서채현 및 동메달리스트 정지민 선수에 이어 같은 대회 콤비인 은메달리스트 이도현 선수의 영입으로 우리나라 스포츠클라이밍을 대표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우리나라의 금메달 획득이 유력한 종목으로 서울시청 직장운동부의 첫 올림픽 금메달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3년 펜싱국가대표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플뢰레의 신예 강자 박지희 선수의 영입으로 서울시청 펜싱팀의 전력 또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박지희 선수는 2023년 제61회 전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 제52회 회장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내 대회 우승을 휩쓸기도 했으며, 현재 서울시청 펜싱팀의 전희숙 감독, 윤지수, 홍서인, 전하영 선수 등 국가대표의 명맥을 이을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박지윤(2023 유니버시아드대회 쇼트트랙 금), 핸드볼 조은빈(2023 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 1위), 태권도 김나연(제104회 전국체육대회 1위) 등도 서울시청 선수단 입단으로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서울시청 선수단의 활약은 서울시민들에게 감동과 삶의 활력소다"라며 "이를 위하여 이번에 입단한 선수를 비롯한 모든 서울시청 선수단에 대해 다가올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악 이도현 선수 펜싱 박지희 선수 쇼트트랙 박지윤 선수 핸드볼 조은빈 선수

은평구체육회 제7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단체 및 개인 수상

지난 2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제7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은평구체육회(회장 박낙홍)와 박낙홍 회장이 각각 '단체 스포츠 가치' 부문과 '개인 생활체육'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은평구체육회는 서울시 자치구체육회 최초로 민간 위탁 체육시설을 유치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체육 교류 활동을 통해 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체육회 성과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비대면 체육 수업과 엘리트 체육인 육성 등 전문체육을 연계한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은평경찰서와 '워킹 순찰대 합동 순찰', 서울중앙혈액원과 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 하나둘 운동', 코로나 취약계층 대상 예방키트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낙홍 은평구체육회장은 "개인과 단체가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에 대해 영광스럽다"라며 "이번 수상을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은평구민이 체육활동을 일상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정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2024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2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틀 관에 위치한 사무처에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무식에는 사무처 임직원과 전임지도자 그리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장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2024년도 업무를 공유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장애인직장 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들은 "올 한 해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힘찬 파이팅으로 단체 촬영을 끝낸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참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강원도를 방문한 참관단은 '우리 함께 빛나자(Let us Shine)'라는 주제로 진행된 개회식에 참석해 전 세계 78개국에서 온 청소년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어진 일정에서는 3대 3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빙판 위를 누비는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회 곳곳에 설치된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참관단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 전문체육사업 설명회 개최

지난 1월 26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틀관 대회의실에서 '2024 전문체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장애인 선수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원하고, 더 많은 신인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전문체육팀 담당자들의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된 설명회는 '전국장애인 동·하계 체육대회' 참가 지원방안에 대한 안내로 시작되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3연패 달성 등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한층 더 꼼꼼해진 지원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종목별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가맹단체 육성계획,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계획,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 등을 안내했습니다. 설명회를 찾은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정희영 부회장과 이장호 사무처장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제21회 장애인동계체전 서울시 종합우승, 3연패 달성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가 총 55개(금24·은18·동13) 메달, 총 3만441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종합 2위(2만9,886점, 금19·은27·동17), 강원도가 종합 3위(1만7,457점, 금5·은2·동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장호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총감독)은 “3연속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 낸 서울시선수단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의 수많은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라며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는 1등의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많은 신인선수들을 발굴하고 뛰어난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항상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이원리조트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스키로, 스키는 타 종목에 비해 높은 비용과 낮은 접근성으로 비장애인도 다소 배우기 힘든 종목입니다. 장애인스키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과 동계 스포츠를 배우고 싶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교육은 전 대한장애인스키협회 황성호 사무국장의 이론 수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여러 질의를 통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실기교육에는 코웨이 휠체어농구단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관준성 선수와 윤석훈 선수는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지도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장애인 참가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팁 등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들이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체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41차 이사회 및 제19차 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2월 2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라다이스 사무처에서 제41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및 사업결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3건의 심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전차(제40차) 이사회 결과 보고와 함께 임원진과 사무처 직원 간 새해 인사 자리도 마련됐으며, 전국장애인동계체전 3연패 달성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2월 27일 열린 제19차 총회에서도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동계체전 3연패 달성에 큰 힘이 되어 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사님들과 대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구 지회 및 가맹단체와 협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스포츠〉를 읽으면 선물이 따라오나 봄!



Quiz event!

〈서울스포츠〉 03+04월호만 읽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풀어 주세요.

- 1) 법률상 전자스포츠라고 불리며,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이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① a스포츠 ② b스포츠 ③ c스포츠 ④ e스포츠
- 2) 서울 곳곳의 걷기 코스를 시민들이 좀 더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펴낸 책의 이름은 <OOOO 걷기 코스>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① 서울걷길 ② 서울걷기 ③ 서울코스 ④ 서울걷자
- 3) <서울스포츠>에는 다양한 스포츠와 그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3+4월호에 소개되지 않은 스포츠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볼링 ② 축구 ③ 농구 ④ 야구

참여 방법

<서울스포츠> 웹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참여 기간

4월 25일(목)까지

당첨 선물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잔을 드립니다.



웹진 바로가기



제24회

여성마라톤

2024 WOMEN MARATHON FESTIVAL



- 일시** 2024년 5월 4일(토) 오전 08:30 집결
- 장소**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
- 접수기간** 2024년 2월 23일(금) ~ 2024년 3월 29일(금)
- 모집인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능(선착순 6,000명)
- 참여코스** 10km(40,000원), 5km(35,000원), 3km걷기(25,000원)

* 단체참가 혜택_ 50명 이상 단체 참가 시 동호회 부스 1동 또는 10% 할인 (택1)